

민선8기 도 정무특보 내정... 김광수 전 의원

“전북발전 위해 헌신”

민선 8기 전북도 정무특보에 내정된 김광수 전 국회의원(전주갑 20대 의원)이 22대 총선 출마를 공식화하고 전북발전을 위한 헌신을 다짐했다.

최근 자신에게 제기된 국회의원 출마설에 따른 김관영 지사 당선인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내정자는 27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이 같이 밝히고 도민을 위한 역할 수행을 약속했다.

김 내정자는 “주 전총 심가프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 김관영 전 북지사 당선인으로부터 정무특보를 맡아 달라는 간곡한 제언이 있었다”라며 “직책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 고심 끝에 수락했다. 인사가 곧 정책이라는 김 당선인의 말처럼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직책은 사람에 따라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전북은 지방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쓸만한 일자리가 없어 유능한 젊은 인재들이 전북을 떠나고 있으며 농촌에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적막한 고장으로 변해가고 있다”라며 “이제 전북의 새로운 변화가 절실한 때인 만큼 지역 정치권과 힘을 모아 전북의 중장기 성장동력과 숙원사업, 예산 법안 등이 제대로 국정에 반영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민선 8기 전북도 정무특보에 내정된 김광수 전 국회의원이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의 포부를 밝히고 있다.

자신에 대한 총선 출마설 등 강하게 부정 김관영 도지사 당선인에 부담 덜어주기 위해

김광수 내정자는 정무특보로 중앙 정치권 등과 긴밀한 교류를 주문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김 내정자는 “올바른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어떤 사람이 일하느냐에

따라 성과는 다를 것”이라고 말한 후 도민을 향해 “채로 출발하게 된 김관영 호와 함께 위기의 전북을 일으켜 세우는데 힘을 모으자”라고 주문했다.

/뉴스시스

12대 전반기 민주 도의회 의장단 후보 선출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 본회의 선거 앞서 의원총회 열고

국주영은 의장 후보로 선출... 1부의장 이정린 · 2부의장 김만기

3파전으로 진행한 제12대 전북도의회 전반기 의장에 더해민주당 국주영은(전주2) 도의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40명의 도의원 가운데 37명인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오는 7월1일 본회의의 선거에 앞서 27일 의원총회를 열고 국주영은 의원을 의장 대표의원으

로 선출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당초 2차 투표까지 예상됐지만 1차 투표에서 민주당 의장 후보로 결정됐다.



국주영은은 의장 후보



이정린 1부의장 후보



김만기 2부의장 후보

20표를 얻은 국주영은 의원은 12표를 얻은 문승우 의원(군산4)과 5표를 얻은 박용근 의원(장수)을 여유있게 누르고 확정됐다.

국주영은 의원은 수락 연설에서 “제12대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장 후보로 선택해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 새

로운 지방분권시대를 열어갈 강한 도의회를 만들 수 있도록 깨끗하고 투명한 의회,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랑받는의회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부의장 대표의원 선출에서는 1부의장에 이정린 의원(남원)이 김희수 의원(전주6)을 2대 14로 누르고 확정됐으며, 2부의장에는 단독 입후보한 김만기 의원(고창)으로 결정됐다. 이어 상임위원장 대표의원으로는 △운영위원장 김정수(익산2) △행정자치위원장 김이재(전주4) △환경복지위원장 이병철(전주7) △농산림경제위원장 나인권(김제1) △문화건설안전위원장 이병도(전주1) △교육위원장 김병지(전주11) 의원이 각각 확정됐다.

한편 도의회는 오는 7월 1일 열리는 임시회 본선거에서 의장, 부의장을 선출하고 4일 상임위원장, 5일 운영위원장 및 상임위원 확정 후 5일 폐회한다. /김경수 기자



김종식 전북도의회 의원이 27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임준 군산시장의 금품수수혐의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현직 군산시장 금품수수 혐의 수사를”

김종식 도의원

전북도의회 김종식 의원이 김임준 군산시장의 금품수수혐의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종식 의원은 27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임준 군산시장이 기존의 주장과는 다르게 거짓말탐지기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자신을 무고죄로 고소할 만큼 자신 있다면 지금이라도 수사에 협조하라”고 주장했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경선 기간 김종식 도의원에게 각 200만원씩 2회 총 4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를 받고 있다.

김종식 의원은 김임준 시장이 지인들을 통해 본인을 회유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으며, 이는 김임준 시장이 자신의 잘못을 무마시키려는 행위이고, 자신을 무고죄로 고발할 만큼 떳떳하다면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본인은 돈을 받고 싶지 않았으나 정치경험상 자신의 선거에 피해가 갈까 봐 받았으며, 현재 경찰출처에서도 돈이 오간것은 맞다고 판단했고, 뇌물상여부만 조사중이라고 주장했다.

민선8기 임기가 시작되는 이때 군산의 시장과 도의원간의 법정싸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경수 기자

국힘 조수진 의원, 오늘 황인홍 무주군수와 면담

현안 등 청취 예산문제 논의



조수진 국민의힘 국회의원(당수석 최고위원)이 28일 전북을 방문한다. 오전 전북도의회 기자간담회에는 국민의힘 광역·기초의원 당

신인들도 함께한다.

국민연합은 6·1 지방선거에서 △전북도의원 이수진 △전주시의원 천서영 △익산시의원 송영자 △군산시의원 윤세자 등 4명의 비례대표 당선인을 배출했고, 제2당이 됐다.

이후엔 무주로 이동해 황인홍 무주군수 당선인을 만나 현안과 수해 방지 대책 등을 청취하고, 예산 지원 문제를 논의한다.

무주는 태권도의 메카다. 무주태권도원은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의 10배, 여의도 절반 규모로 지난 2004년 태권도 종주국으로서 태권도 성지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2475억 원이 투입됐다.

태권도 전용 경기장, 태권도박물관, 체력관 등이 마련돼 있으며, 태권도 전용 경기장인 T1 경기장은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용 경기장으로 4500여석 규모를 자랑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무주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을 공약했다.

새 정부 출범 후 무주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비 3억 원이 문화관광부 예산안에 반영돼 기획재정부에 제출돼 있다.

황인홍 무주군수 당선인은 농업전문가로, 4년 전 무소속으로 당선됐고, 이번 6·1 지방선거 때는 58.1%의 득표율로 무소속 재선에 성공했다.

조수진 의원의 호남 방문은 △8일 전남 구례 △14일 전남 목포 신안 △22일 전남 순천 광안에 이어 이달 들어서만 네 번째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북소방, 다중이용시설 화재 대피 동선 확보 대책 추진

전북소방본부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재 대피 및 피난 동선 확보대책을 오는 8월 말까지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그간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폐쇄된 상태로 운영되던 건물의 출입구가 가려두기 완화 후에도 폐쇄된 상태로 방치되는 곳이 있어 개방을 통해 화재 시 탈출입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상자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에 노유자·판매·의료·숙박시설 등 도내 주요 다중이용시설 5817곳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다중이용시설 출입문 폐쇄·잠금 등 특별점검(월 1회) △민관 협업 안전관리 간담회 등이다. /뉴스시스



전주교전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 등 도내 7개 시민·사회단체는 27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은 경찰의 독립성 및 중립성과 민주적 견제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경찰 통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행안부 경찰 통제 시도 멈춰라”

전주교전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 등 도내 7개 시민단체들

전북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이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경찰 통제 권고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전주교전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 등 도내 7개 시민·사회단체는 27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은 경찰의 독립성 및 중립성과 민주적 견제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경찰 통제를 즉각 중

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민주경찰의 발전 도모를 위해 1991년 경찰법을 제정하고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하고, 다른 한편으로 그 운영의 민주성을 확보했다”며 “경찰 제도 개선은 역사적 발전 과정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찰국 신설은 검찰에 이어 경찰마저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삼

으려는 권력의 사유화”라며 “경찰국 신설 등 경찰 통제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행안부 내에 이른바 ‘경찰국’으로 불리는 경찰업무조직을 신설하고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및 인사절차의 투명화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 내에 장관이 경찰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필요 최소한의’ 조직을 신설한다는 것이 행안부의 입장이다. 내무부(행안부의 전신) 치안본부 가 1991년 내무부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한 지 31년 만에 행안부 내 경찰 업무 조직이 생기는 것이다. /뉴스시스

민주 전주를 지역위원장 경선 후보자 간 ‘토론회 제한’

내년 4월 치러질 전주를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해당 지역위원장 경선 후보자 간 토론회가 제한됐다. 전주율은 이상직 의원이 공식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것이다.

민주당 전주를 지역위원장 공모에 등록한 이덕춘 변호사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민의 상처를 치유하고 뜻을 담아낸 방안에 대해 함께 공모에 나선 7명의 후보군과 논의하는 지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최근 실

시한 전주를 지역위원장 공모 결과, 고종운 변호사·박진만 전 전주시의원, 성치두 이재명 대선후보 균형발전위 전북수석상임본부장, 양경숙 국회의원(비례), 이덕춘 변호사, 이정현 전 JTBC 앵커 임정엽 전 완주군수, 최형재 전 전주시지역위원장 등 8명이 응모했다.

이덕춘 변호사는 “지역위원장 후보자들이 만나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전주를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도 들으려 한다”며 “지역위원장이 된다면 지역위원회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 논의

하는 지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지역민의 상처를 치유하고 지역민의 뜻을 담아낼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면서 “민주당 전주를 정치인들이 어떻게 뜻을 모을 것인지,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5명의 후보들과는 전화 통화로 긍정적인 의사를 전달 받았다”면서 “공정한 토론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사회단체가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시스

제9대 진안군의회 의원 당선자 오리엔테이션 개최

진안군의회는 27일 진안 신약초타운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제9대 진안군의회 의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선자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제9대 진안군의회 개원을 앞두고 의회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안내하고 당선자들이 원활하게 의정활동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선자와 의회사무과 직원 간의 상견례를 시작으로 진안군의회 일반현황, 사무과 조직 및 담당업무 소개에 이어 김병도 박사의 ‘지방의회 운영

및 제도’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이날 송준섭 의회사무과장은 “당선자들이 충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한 정적인 제대 의회가 출마할 수 있도록 민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9대 진안군의회는 오는 7월 4일 첫 임시회를 열어 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7월 5일 개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만기, 손동규, 이우라(이상 나 선거구), 김명갑, 동창욱, 이병진(이상 나 선거구), 이미욱(비례대표) 당선자가 이끌게 된다. /진안=우태만기자